

맛·예술 향연 ...국내 유일 亞 문화교류 축제 막 오른다

ACC, 8-11일 '2026 아시아문화주간'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아시아 문화교류 축제가 막을 올린다. 15개국의 음식과 음료, 전통음악 공연, 생활문화를 한자리에서 즐기고 현지 예술가, 셀러와 특별한 소통의 장이 올해로 8회째 전남광주에서 펼쳐진다.

음식·음료·전통음악 공연·생활문화 한자리

인도·네팔 등 15개국 66개 부스 '아트마켓'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8-11일 아시아문화광장 일원에서 '2026 아시아문화주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의 식탁(Asia on the Table)'을 주제로 아시아 각국의 음식과 음료, 이를 둘러싼 생활 문화를 한자리에 모아 식탁이라는 일상의 공간을 통해 아시아를 이야기한다.

주요 행사인 '아시아의 식탁'에서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레스토랑 아앗다 항동(Ahh Kard D Hang Dong)을 운영 중인 셰프 파차라판 키티콘(Pachraphan Kittikorn)이 자연 친화적 가정식 다이닝을 선보인다. 치앙마이 외곽 항동 지역에 자리한 이곳은 가정에서 물려받은 조리법을 바탕으로 태국 북부의 제철 식재료를 더해 메뉴를 구성하는 곳으로, 향신료를 전통 절구인 '크록(Krok)'으로 직접 빻아 쓰는 방식이 특징이다.

이어 후식은 광주에서 활동하는 모던 프렌치 파인다이닝 '알렝'의 공대한 오너 셰프와 협업으로 구성되며, 곁들임 주는 버 누룩으로 술을 빚는 광주의 전통주 양조장 '곰브루어리'가 선보인다.

보인다.

또한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아시아의 커피와 차를 맛볼 수 있는 워크숍도 열린다. 인도네시아 커피 전문가이자 바리스타인 '미카엘 자신(Mikael Jasin)'이 커피 이론과 시연을 함께 다루는 바리스타 클래스를 두 차례 개최한다. 미카엘 자신은 세계적인 바리스타 대회인 '2024 월드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인도네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우승한 바 있다. 이 외에도 태국 야생차 연구팀 '미앙 크래프트(Miang Craft)'가 태국의 전통 차문화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소개하고 태국의 야생차와 차 생산의 과정을 공유한다.

무대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전통음악 공연도 펼쳐진다.

경상남도 고성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온 국가 무형유산 '고성농요'는 모내기철 논에서 부르던 농사소리를 농사 과정을 재현하며 노래와 춤, 연희로 표현할 예정이다.

인도 전통 현악기 '수르바하(Shrubahar)'의 연주도 감상할 수 있다. 수르바하는 크고 낮은



음역

을 내는 악기

로, 깊고 느린 울림이 특징이다. 우즈베키스탄과 한국 연구자가 결성한 그룹 '투론(TORON)'의 노래와 음악도 무대에 오른다. 아시아 전통음악 공연은 별도 신청 없이 관람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인도, 네팔, 오만, 인도네시아, 시리아, 몽골, 스리랑카, 태국, 튀르키예, 한국 등 아시아 15개국에서 66개 부스가 참여하는 '아시아 아트마켓'에서는 각국의 수공예품들과 생활용품, 문화상품 등을 만나볼 수 있으며, 현지 예술가, 셀러와도 소통할 수 있다.

김상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아시아 문화주간은 아시아 각국의 문화와 예술을 한자리에서 즐기고 교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이라며 "행사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ACC를 방문해 다양한 아시아를 체험하고, 즐거운 추억을 담아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오복기자

'마쓰다 도키코의 회' 회보 제2호 발행

정용피해 참상 알린 문학 삶 되짚어

조선인·중국인 정용 피해의 진상 규명에 평생을 바친 일본 작가 마쓰다 도키코를 기억하고 그의 문학과 삶을 되짚는 두 번째 회보가 최근 발간됐다.

회보 제2호는 작가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문학 자료, 관련 활동을 통해 마쓰다 도키코의 문학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마쓰다 도키코의 회'가 발행한 회보 제2호에 따르면 마쓰다 도키코를 기억하고 그의 문학과 삶을 되짚기 위해 지난 1월 도쿄체육관 서브아레나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에자키 준 대표는 지난해 마쓰다 도키코 국제심포지엄 참가 당시의 내용을 중심으로 2박3일간의 방문지와 활동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심포지엄에서 낭송했던 문병란 시인의 '식민



지의 국어시간'과 김정훈 시인(전남과학대 교수)의 '마쓰다 도키코와 조선이여' 영상을 상영, 참석자들은 한국어로 낭송되는 시의 운율을 접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마

쓰다 도키코의 작품과 관련된 발굴자료와 참고문헌도 전시해 참석자들이 작가의 문학과 생애를 살펴봤다.

한편 앞서 발행한 '마쓰다 도키코 뉴스' 제1호에는 하나오카 사건을 배경으로 조선인·중국인 노동자들의 정용 피해와 저항 등 미발표 종장 원고가 발굴된 내용이 담겼고, 김정훈 교수에 의해 국내에 소개됐다. /오복기자



동신대 이경모카메라박물관 소장품 순회전 '같은 무게의 날들'

현대사 보도사진 거장 탄생 100주년 기념

내달 22일까지 서울展...내년 3월 ACC展

한국 현대사의 결정적 순간들을 카메라에 담아냈던 '보도사진의 거장' 이경모 선생의 작품을 서울과 광주, 부산에서 선보인다.

동신대학교는 올해 이경모 선생 탄생 100주년과 2027년 개교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KT&G 상상마당,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고은사진미술관과 함께 동신대학교 이경모카메라박물관 소장 작품 대규모 순회 기획전 '같은 무게의 날들'을 개최한다.

기획전은 8일부터 11월22일까지 서울 KT&G 상상마당 홍대갤러리 3, 4, 5층에서 열리며 전시에는 작가의 서명이 들어간 빈티지 프린트 등 사진 작품과 세계 희귀본 카메라 60대를 포함한 카메라 컬렉션 등 150여점, 미공개 일기, 한국전쟁 당시의 취재수첩 등이 공개된다. 광주 전시회는 ACC에서 내년 3월2일부터 4월23

일까지, 이후 부산 고은사진미술관에서 이어서 부산전이 열릴 예정이다.

동신대는 전시와 함께 이경모 작가 탄생 100주년 기념 작품집 '이경모, 두 개의 시선'을 함께 발간한다.

순회전을 총괄 기획한 허용무 동신대 학술문화정보원장은 "이번 순회전이 이경모 선생의 작품 세계를 재조명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가치를 널리 공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1926년 전남광주 광양에서 태어난 이경모 작가는 호남신문(현 광주일보) 사진기자로서 여순사건을 사진에 담아냈고, 이후 한국전쟁을 종군하며 역사적인 장면들을 카메라에 담아왔다. 동신대 객원교수를 지낸 이경모 선생은 평생에 걸쳐 수집한 세계 각국 카메라 1천 400여대와 빈티지 프린트 작품 등을 동신대에 기증했고, 동신대는 이를 기반으로 1996년 11월 우리나라 최초의 카메라박물관을 개관했다.

/오복기자

가을을 노래한 시...독창·대합창 선율로

전남광주시립합창단, 오는 16일 정기연주회 '가을의 서정 II'

아름다운 '시(詩)'가 성악가의 목직한 독창과 합창단의 풍성한 화성을 만나 가을 정취에 흠뻑 빠질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립합창단은 오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립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제20회 정기연주회 '가을의 서정 II'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공연장 로비에서부터 객석까지 관객의 오감을 사로잡는 무대로 마련됐다. 로비 공간에 무대에서 불릴 시 구절들을 시각적으로 연출해 공연 전 가을의 시어를 음미하고 객석에서 선율로 마주하도록 연결했다.

먼저 시인 천양희의 시에 박나리 작곡가가 곡을 붙인 '오래된 가을'과 김바하 편곡의 '가을밤', 베이스 임해철과 소프라노 김애령이 한 명희 시·장일남 곡의 '비뚱' 등을 원곡의 서정을 담아 독창으로 들려준다. 이어 현대 대표 작곡가들이 편곡한 풍성한 대합창으로 확장되는 선율에 첼로(최승욱)·더블베이스(서지은)·드럼(이현동)이 더해지며, 시 한 편이 지닌 감동을 한층 입체적인 음악으로 완성한다.

이와 함께 경기민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지는 편곡의 '군밤 타령'이 향피리(김유민)



의 신명 나는 가락과 만나 경쾌한 에너지를 뽐내며, 권나현 시·조혜영 작곡의 '봄 바람난 년들'은 관객들에게 유쾌한 웃음과 활력을 전하며 파날레를 장식한다.

임창은(사진) 예술감독은 "시가 노래가 되고 그 노래가 마음에 스며드는 따뜻한 감동을 누리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복기자

CBS 라디오

아침 시사의 새로운 중심

박성태의 뉴스쇼

월~금 07:10~09:00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FM 98.1 MHz

CBS 표준FM

CBS RAINBOW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YouTube